

2025년 11월호 (제 251호)

소중한사람들

나무

나무는
밤마다 아프다.
흔들리는 고통에
노랗게
빨갛게
물이 든다.

사람들은
물이 든 모습에 감탄한다.
황홀한 빛깔
형형색색의 숲을 이루었다고....

마침내
노란 옷도
빨간 옷도
하나씩 벗고
벌거숭이가 된다.

양상한 가지에
흰 눈이 내리면
눈부신 흰 꽃을 피운다.

푸르디푸른 봄을 기다리는
오랜 기다림.
참고 견디는 인내는
나무의 침묵 속에
깊이 숨겨져 있다.

시/ 유정옥

발행인 이성일,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31-582-0191 · www.pphealing.com

유정옥 사모 고별 설교 전문

소중한사람들 청평힐링센터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제목 : 눅 22:52-53 십자가의 길, 나의 사명



누가복음 22장 44절, 52-53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작.

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같이 되더라.

52-53 예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어요.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만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좀 기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매우 외롭고 힘든 밤에 기도를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데,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같이 되더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병사가 부상을 당해 울컥울컥 피가 나오는 것처럼 피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울컥울컥 피가 쏟아지는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해도 막상 옮겨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리하여 예수가 거기서 '아, 이게(피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검과 몽치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데 검과 몽치를 왜 가져왔느냐' 말하세요.

강도 잡는 것같이 나를 왜 그렇게 강도 잡는 것같이 그렇게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는 나를 안 잡아갔다. 너희들이 나를 안 잡아갔었고 내게 손도 대지 아니하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밤새 땀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라는 거. 그것을 향하여 걷는 것입니다.

저의 재판이 10년 7개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소중한사람들 노숙인 쉼터(셀터)에 사무장이 있었어요. 사무장이 얘기하길, '우리 아내가 갱년기라서 나를 너무 의처증으로 의심한다'고 했어요. 이틀 전에 (사무장이) 나한테 물밀 작업을 한 건데 나는 모르고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갱년기가 되면 자기의 역할이 없어서 힘이 들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더 잘해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성 쉼터에 박○○라는 직원이 있어요. 그 박○○라는 직원이란 자기랑 깊은 관계로 생각한대요. '아기도 뭐 낙태시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자기한테 못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더 열심히 잘해 주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틀 전이예요. 그래서 2014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12월 11일 날 아침에 직원 조화를 하러는데 여자가 하나가 왔어요. 막 뺨씩대면서 와 가지고 발로 막 차고 막 그래요. 우리 그 사무실의 집기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이런 나오라', '이런 어디 갔냐며 그 박○○(여성쉼터 직원)라는 여자를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감을 했죠. '그 아내인가 보다. 이 사람이 사무장의 아내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얼른 그 박○○를 데리고 여자 쉼터로 도망을 갔어요. '여기 숨어 있어.' 내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여기 숨어 있거라' 그러면서 내가 혼잣말로 그랬어요. '야후. 무슨 깊은 관계로 알고 있나? 또 아기도 무슨 낙태했다고 그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애(여성쉼터 직원)가 '어머, 사모님 어떻게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야?' 그랬더니 개가 막 울면서 자기 그 사무장하고 2년 동안 불륜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아기도 두 번 낙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는 그 여자(사무장 아내)를 만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 무슨 말을 해 줘야 할지 몰랐어요. 조금 있다가 그 남자랑 여자랑 올라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 아내가 그 여자애에게 막 욕을 해요. 막 욕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막 뭐 무슨 아 그냥 뭐 말도 못 해요. 그런 욕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몰라요. 막 욕을 하면서 또 신발을 벗어서 막 때려요. 머리를 막 때리는데 남자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좀 잘해 보라. 저렇게 때를 맞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했지만 (남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 했더니 딱 한번 자기기가 술을 이렇게 곧드레만드레 먹고 술김에 한번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사무장 아내)는 더 흥분했어요. 그 얘기 때문에 더 흥분했어요. 자기 남편이 여태까지 집에 가서는 '여성 쉼터에서 그 여자가 나를 막 유혹한다' 이렇게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막 유혹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막 한 번 잤다는 것 때문에 막 흥분한 거예요. '내가 아년을 죽이고 만다'고 막 이려고. 그래서 이제 그날 막 옥신각신 싸움을 하고서, 그리고서 그날 밤에 돌아갔어요.

그리고서는 그 여자, 박○○는 나한테 그날 12월 11일 날 사직서를 썼어요. 사직서를 우리 사무실에 뒀어요. 그날이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일이 월요일이예요. 근데 월요일 날 이 남자가 딱 나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근데 이제 13일, 15일 날 가기 전에 14일 날, 14일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예배드리려고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들어와요. '원 일이니?' 그랬더니 그 남편의 그 아내가 자기네 집에 와서 난리를 치면 자기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심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심장병이 걸려서 자기는 죽을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걸(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확인서) 하나 써 줘라. 너를 그 사람이 간음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 이러는데, 그거를 내가 그 여자한테 얘기할 테니 그걸 하나 써다오' 그랬더니 개가 이제 뭐 2년 전부터 이렇게 뭐 어찌고저찌고 이렇게 써서 주고 갔어요. (사무장이) 우리 직원들한테 땀땀하게 (자기 잘못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내가 불러 가지고 이걸(사실확인서) 보여 줬어요. 그랬더니 (사무장)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바로 사직서를 쓰고 나가더군요. 그래서 나는 중구정으로 전화를 했죠. '사무장이 나왔으니 사무장을 새로 써야 한다'고. 그랬더니 '사무장 쓰는 데 몇몇 공문서부터 써라' 뭐 이렇게 뭐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3시에서 4시쯤 되니까 이 남자가 전화를 했어요.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복직을 하려고 한대요. 다시 이렇게 아까 써 준 거 그거 없어진 걸로 치고, 없었던 걸로 치고 다시 우리 소중한사람들 쉼터 사무장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내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랬더니 '들어올 수 없어?' 이러면서 '중구청 직원들이 다 자기를 쓰게 해야 한다고. 너 안 쓰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절대 쓸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돈을 달래요. 그래서 내가 '아 무슨 돈을 줘요?' 그랬더니 '그래?' 이러더니 말이 금방 '아, 너 옛 먹어볼래?'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털 텐데 먼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있어?'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날이 갔어요.

그날 16일부터 중구청 직원들 세 명이 매일 나와요. 매일 나와서 그 사람을 (사무장으로) 다시 쓰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2년 동안이나 미혼인 여자를 간통(혹은 부적절한 관계)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중구청 직원들이 나한테 '남자의 능력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매일 매일 와요. 16일부터 매일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냐? 제일 (괴롭히는) 열심이었으면 주임에게 내가 불려서 말했죠. '내가 당선이 우리 그 사무장하고 술도 먹고 그런 거 내가 알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장이 '술만 먹은 게 아니라 여자들 과도 향응했고 또 음식도 사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장이) 자기네들(중구청 직원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를 다시 복직을 안 시켜 주면 내가 그것(너네 나 향응 받은 것)을 서울 시청에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마치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써서 나한테 줘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그랬더니 이제 중구청 주임이 자필로 써서 나한테 팩스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30일이 돼서 우리가 이제 그 사무장을 새로 썼잖아요. 그래서 1월 2일 날 그 사람에게 대한 걸 다 가지고 중구청에 들어갔더니 보지도 않고 '이건 뭐 어쩌서 들었다', '뭐 어쩌고 들었다'며 승인을 안 해 줘요. 그래서 내가 수없이 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은 벌써 장충동 동사무소로 좌천이 됐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어린, 제일 아래인 사람을 좌전을 했어요. 도저히 안 해 주는 거예요. 2일 날도 가고 4일 날도 가고 6일 날도 가고 이렇게 해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5일 날 됐을 때, 1월 15일 날 됐을 때 내가 남대문 경찰서에서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들 아무리 해도 우리 저기(새로운 사무장)를 인준을 안 해 준다. 우리 그 사람은 이제 보름이 됐잖아요. 와서 일한 지,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보름을 일했는데 이 사람을 인준을 안 해 준다 이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뭐 다 적었어요. 아 근데 '그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인준 안 해 주면, 먼저 사람이 시작서를 15일 날 썼잖아요. 한 달이 됐는데 왜 이거를 처리를 안 하나' 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그거를 냈더니 경찰서에서 바로 중구청으로 연락이 가요. 남대문 경찰서 연락이 가서 '해가 고소를 했다' 그러니까 그날로 막 이거를 인준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1월 15일 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이제 밤중에 (1월 달이나가 되게 깊은 겨울이잖아요) 1월 15일 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9시 40분에 우리 쉼터에 왔어요. 네 명이 올라가서 그 우리 쉼터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깨우려고 밤 10시에 (보통) 9시부터 자거든요. 이 밤에 이 사람들을 다 깨우라. 내가 다 얼굴을 체크를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그런 법은 없다. (밤에 조사하는 것은) 행정법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법은 없다. 다만 여기서 무작위로 세 명이나 네 명 정도 누구누구 누구 이렇게 오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조용히 깨워서 내려오겠다' 그랬어요. 안 된대요. 막 그러면서 올라간대. 그래서 막 세 명이 나를 막 밀치니까 난 여자 혼자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서 전화했어. 경찰서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돌아갔어요. 집으로.

그렇게 조사를 한다고 우리를 막 밤에 막 늦게 나오고 그러다가 15일 날 그러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나면, 아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내네 현장 조사를 할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1월 15일 날 그리고 (토요일 지나고) 월요일인 19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네 명이 나왔어요. 이○장, 강○원 등 네 명이 나와서 뭐 이거 이거 다 내놓아야 한대요. 우리 다 내놓아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 그 상당실을 빨리 (조사 공간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 네 명 중에 한 명이 그 사무장 친구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 놓고 우리 직원들을 양쪽 직원들을 갖다 놓고 한 명씩 한 명 나가면 한 명 한 명 나가면 한 명 계속 뭐 뭐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닷새가 지났어요. 19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지나니, 금요일 날 중구청 직원 세 명, 서울시장 세 명, 도 복지부 네 명, 열 명이잖아요. 열 명이 딱 와 가지고 이렇게 나를 둘러쌌어요.

나를 둘러싸고 종이를 주면서 내가 불러 주는 대로 쓰래요. 그래서 내가 '못 씁니다' 그랬어요. '나는 못 씁니다. 그다 거짓말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거를 글로 쓰래요.' 그래서 내가 '못 쓰겠습니다. 나는 쓸 수 없어요' 그랬더니 '너 그러면 검찰에 고발한다' 이래요.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 그런 데서는 법적으로 잘 이렇게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내가 그랬죠. '여기서 거짓이면 검찰에서도 거짓이고, 여기서 진실하면 검찰에서도 진실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무 말도 못 쓰니까 얼굴 명이 줄 수 있는 말은 다 했어요. 나에게 '너는 뭐 뭐 하는 것을 못 하게 한다'고.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 쓰고 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3월 3일 날, 하나님께서 여기(청평 힐링센터 부지)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3월 3일 날, 아, 근데 내가 하나님 3월 3일이면 열을도 열여 있어 (같이) 뭉치지 않았어요. (여기가 산이었으니까요) 그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이거 좀 날씨가 그렇까요?' 그러면서, 그래도 3월 3일 날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라고 하셔서, 우리 (서울)소중한 사람들 거기서 (청평으로) 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 3월 3일 날 경찰에 고발되었더라고요.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4번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생각했죠. '하나님이 이것(청평 함 환우 힐링센터)을 지으라고 (이 날짜를) 가르쳐 준 거다.' 그리고선 내가 '무조건 짓는다' 그러고서는 우리 남편 목사님이 '짓지 말라. 당신 나이가 60인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 하다가도 그만두고 집에 올 텐데, 돈도 없이 이걸 지으려 하면 어떡하냐?' 우리 남편 말도 맞았어요. '아, 우리 남편 말이 맞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묵묵히) '법적인 곳에 가서 (싸우겠다).' 요번에 그 양평군 공무원이 검찰에 갔다가 하루 만에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검찰조사는) 사람에게 모멸감을 줘요.

근데 내가 계속 경찰에 불러 다니는데 어느 날 이상일 목사님(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그 경찰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 해주니 일어서 부르르 떨어요. 떨면서 막 이제 나쁜 할 쓰면서 '누구를 뭐 등신으로 아는 거 아니냐면서 막 그래요.

(경찰 조사자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런 와중에 여기(청평힐링센터)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낮에 가서 거기 하고 뭐 또 그 있던 날 또 여기 와서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재판이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가 가지고서는 계속, 내 문제가 그렇게 되었을 때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검사가 30명이 바뀌어요. 나를 맡았던 검사가 3월하고 4월하고 5월하고 막 이러면서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막 가는 거죠. 근데 이 검사들이 바뀌면 또 날 불려요. 어찌고저쩌고 또 그래서 이제 됐잖지, 또 부르는 거예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10년 7개월)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요번 재판에 심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실한 거에서는 말할 게 없게 조사에 임했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말을 써도 (내게 불리한) 말이 다 거기에 있어요. 내가 거기 막해서, (조사관이 나오라고 해서 그때마다) 나갔는데 자기네들이 '오늘은 이렇게 돼서 못 나오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서는 지금 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거든요.

경찰이 유정옥 죄목 첫 번째로는 '소중한사람들'한테 구속인 입소자 다섯 명이 허위로 입소했다고 썼어요. 그 사무장이 (거짓말로) 제보한 거예요. (노숙인들은 주민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을 수도 없는데)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찾아서 그 사람들입소 수칙, 개인 정보 동의 등 다 사인 받은 서류를 제출했어요. 한 사람당 이만큼씩 서류가 있었어요. 거기 들어오면 뭐 무슨 서류 무슨 서류 한 사람당 이만큼씩 서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냈어요. 다 냈는데도 (법원이) 서류를 확인 안 해 봐요. 그래서 그 세 명을 내가 법원 증인으로 세웠어요. (노숙인들 중에 자기가 노숙인임을 밝히고 싶지 않아하기도 하고

법적인 곳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증인으로 정말 세우기 힘든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소중한사람들 유정옥 사모님은 우리한테 잘해 주신 분' 그러고 와서 증인을 썼어요. 그래도 죄가 있데요. 그 죄목이 뭐냐면 '세 명이 증인으로 썼으나 이들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어서 이것은 증언으로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쉼터) 노숙자들이 일하면 40만 원씩을 줘요. 그런데 40만 원을 주면 이 사람들이 술 사 먹고 다 끝나요. 보름을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한 달을 일해라' 그리고 (사비로 40만원을 다해서) 80만 원씩 줬어요. 그랬는데 애(고소자)가 뭐라 그랬냐면, (유정옥이 노숙자 돈을 뺏었다고 해야 하는데) 돈을 이 노숙인들에게 주고 돈을 안 줬다고 할 수 없어요. 은행으로 (월급이)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내가(유정옥이) 뒤통으로 뺏았다'라고 제보를 했어요. 뺏았으면 뺏은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은행에 넣은 것, 이 사람들에게 준 돈을 어떻게 뺏겼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이티 신고를 위해) 미국에 갔었잖아요. 3년을 계산했는데 3년 동안 여섯 번을 휴가 일수를 초과했대요. 허가 날짜, 즉 휴가 날짜가 6일 초과되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고소 당하게 뭐냐면 사기죄예요. 출국해서 가는 날은 (밤)8시 반 9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날은 (새벽)4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기서 일했어요. 내가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는 날 (밤)8시 반 9시에 (출발하는) 비행기 타고, 올 때 (새벽)4시 (인천도착) 비행기를 타고, 4시 도착하는 거. 그러니까 3년 동안 (휴가일수) 6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가 일수 초과한 적) 없다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대한항공에 얘기해 가지고 티켓을 제시하면 몇 번 비행기가 몇 시에 출발하고 몇 시에 도착하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뒤어다냈어요. 그런데 경찰은 6일 (초과한 부분들) 내가 허위로 (휴가일수들) 썼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한 거, 그런 거예요. 내가 사기죄도 되었다가 횡령죄도 되었다가 막 이러는 거죠. 막 이렇게 돼요. 또 이렇게 돈을 집어넣은 거, 사회 복지 일을 한다면 실제로 못된 사람들도 좀 많이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딱 그랬어요. 중구청, 서울시장, 보건복지부 이 세 기관이 하나고 상대가 나 혼자예요. 나 하나.

그래서 내가 그거를 수없이. 요번에 마지막 그거 쓸 때는 내가 500페이지 분량의 변호서를 냈어요. 일주일 동안 500페이지의 글을 썼다고요. 눈이 여기가 다 빨갛게 되도록 그 500페이지의 글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고소한 거에 모두 증거로 반박하는) 증거 자료로 해서 500페이지의 책을 만들었어요. 그걸 가책(임시서적)으로 냈어요. 내는데 뭐, 대법원은 네 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네 권을 만들어서 냈어요.

근데 보니까 (소용없어요) 다 기각이에요. 오늘 40명이 넘는 사건을 (세 명이) 15명씩 나누어 (사건 번호를) 얘기하는데 '누구 기각, 누구 기각, 누구 기각'. 그러려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각'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뭐 그 사람들은 보니까 1번부터 15번 하고 또 다음 사람 16번부터 30번까지 하고 그다음에 31번부터 40명 번까지 하고 다 기각이다. 그리고 벌써 일어나서 다 나가요. 그 사람들은 기각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 돈 받겠조. 항소하는 중에 법을 아는 우리 후원자가 있어요. 후원자가 자기 명예를 걸고 탄원서를 작성했어요. 다 일일이 썼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거는 정말 무죄다.' 막 다 썼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썼는데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탄원서를 써준 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가면서 '아 정말 내가 죄송한데요. 판사들이 이것을 읽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 주실 것을 믿고 그래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썼어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 보면 이제는 너희의 때요. 아들의 권세로다. 아들의 권세예요.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세가 확 깔려 있어요. 아들의 권세가 확 깔려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권세에) 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청중은 청평힐링센터 암 환우들임) 아픈 거로 하나님이 이곳에 특별히 보낸 거예요. 아멘. 정말 열심히 여기서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부르짖을 때 땅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아멘.

내가 어제 어젯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예. 다 터졌어요. 이런 데가 빨갛게 돼서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저기 뭐야?' 파운데이션으로 가렸어요. 살짝 빨라서 (나중에) 씻으면 (다시) 빨갛게졌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이사아서 41장 10절에 있습니다. 41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임이 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그 사람들의 권세. 그 사람들의 대단한 권세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좋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그 감옥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누가 있어서? 누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아,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은, 몸은 힘들어요. 몸은 잠 못 자고 그랬으니까 (힘들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이 감옥으로 파송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주 잠시도, 1분도 안 생각을 1분도 하지 말아요. 아멘. 1분도 하지 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정말 지금 너무나 안타까울 때예요.

내가 어제 교회 갔더니 (교회 건물 안) 커피숍에는 500명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오후 예배 200명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은 그냥 '아 뭐 그냥 하시죠' 이러는 데 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래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현실이 그래요. 어려운 정신 치료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비록 양방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을 정말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물밀 작업

2014년 12월 9일 화요일

당○○ 사무장이 나에게 상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요즘 아내가 갱년기인지 자꾸 자기를 여성쉼터 사회복지사인 박○○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자가 갱년기이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작은 일에 화가 나거나 남편의 무심함에 속상해 하지요. 그러니까 더욱 사랑해 주고 이해해주는 식구들의 배려가 중요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당○○은 더욱 심각한 말로 "박○○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낳태했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나는 깜짝 놀라며 "아이구! 그 증상이 너무 심하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일찍 집에 들어가요. 아내가 의심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서 행동으로 알게 해줘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 징조인지. 그리고 당○○이 쳐 놓은 거대한 물밀 작업인지....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아침에 한 여자가 사무실에 들어 왔습니다.

대뜸 "박○○가 어떤 년이야?"하면서 내 책상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 등을 던지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당○○의 아내임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알른 박○○를 데리고 여자 쉼터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 소중한사람들 남성쉼터에서 15분 정도 도보로 가면 여성쉼터가 있습니다.

여성쉼터에 가니 박○○가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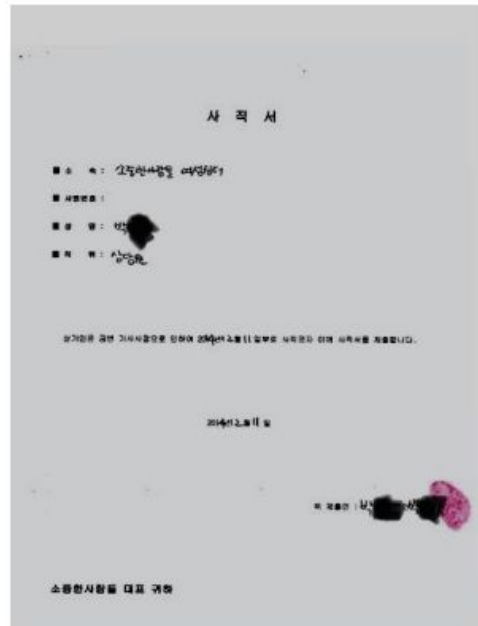
나는 박○○를 안아주며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는 혼잣말로 "아휴 참! 의심의 정도가 심각하군. 박○○랑 좋아 지낸다. 아기까지 낳태했다."고 생각하다니 끔찍 참..."

그 때 울고 있던 박○○가 나를 쳐다보며

"사모님! 사무장이랑 내가 좋아하는 것, 아기까지 낳태시킨 것을 어떻게 아세요?"

이건 또 뭐야. 나는 눈이 등그레 졌습니다.



나는 박○○가 울면서 털어 놓는 이야기를 들으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의 아내가 갱년기여서 의부증이 심해진 것이 아니란 말인가?

나는 박○○에게 "당○○의 아내에게 무조건 잘못을 빌어라. 무엇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당○○이 아내와 함께 여성쉼터에 왔습니다.

박○○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의 아내가 박○○의 머리카락을 잡고

"이 년이 어디다 거짓말을 해. 네 남자라면 다 다리 벌려주는 걸레라며.

우리 남편이 네 년하고 잠을 자? 네 년이 유혹하고 또 유혹해도 남편이 아무 일 없으니까 내 남편을 네 년하고 똑 같은 사람 만들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다가 이번엔 얼굴에 구타를 합니다.

당○○이 그동안 자기는 깨끗한데 박○○가 유혹하고 치근댄다고 거짓말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박○○가 저렇게 매를 맞는데 그냥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이 자신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날, 딱 한 번 박○○와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아내는 더욱 화를 내며 소리 질렀습니다.

사무실 집기를 내던지며 몸을 부르르 떨며 울고불고 하더니

"잠을 자다니 저 년이 저 혼자 좋아 한 것이라면서..."

박○○는 사직서를 내고 소중한사람들을 떠났습니다.

2014년 12월 14일 일요일

박○○가 걱정스런 얼굴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박○○는 "당○○의 아내가 자기 집 주소를 알았으니 집에 오는 것은 시간문제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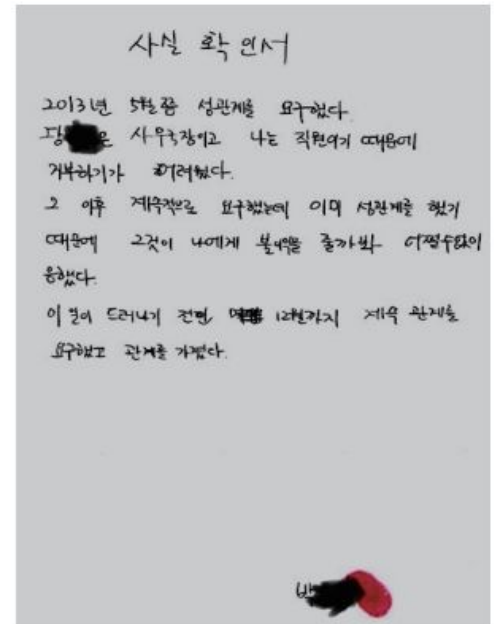
동네에 와서 또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해요

더구나 나의 아버지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그 소리를 들으면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그 여자가 자기 동네에 오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왜 매를 맞고 육을 먹니? 정작으로 잘못된 사람은 사무장이니 그들이 떨고 있어야지."

박○○는 나에게 사실 확인서를 한 장 써 주고는 "당○○의 아내가 자기 집에 오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라고 울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글/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하늘색 죄수복을 입은 선교사

저의 유치원 시절 기억은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네가 엄마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라고 말해서 제일 좋은 옷 입고 간 사진이야."

유치원생이었던 나는 예쁘게 차려입고 온 엄마가 너무 좋았는지 밝게 웃으며 엄마의 눈을 보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첫 접견을 간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2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던 저는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삼십여개의 방이 길게 늘어선 복도 끝, "여자 수감자 접견실"이라 적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하늘색 죄수복에 "622"라 적힌 옷을 입은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주일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 너는 예배 잘 드렸니?"

어머니는 옥에서 만난 신입 죄수들과 지난 6일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세 명의 다른 죄수들을 만나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모두 예수 믿었고, 우린 너무 헤어지기 싫었어."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 25:35-36).

어머니는 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돌보셨고, 병든 사람들을 늘 돌보셨습니다. 물론 옥에 갇힌 사람들도 늘 찾아가 도우셨습니다. 심지어 시카고에 있는 앤드류 서를 위해 글을 쓰기 위해 미국까지 가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어머니를 옥에까지 보내셨습니다. 정말 옥에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옥에는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을 자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접견시간 전부터 10분을 모두 할애하여 저에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저는 접견실에서 나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입은 하늘색 죄수복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는 옥에 파송 받은 선교사입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삼중 세트를 완수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모두 돌보셨으니까요. 나중에 천국에서는 의의 옷을 입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빛나는 영광을 비추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글 / 이성일 목사

***유정옥 사모님 관련 문의는 010-7195-3045 이성일로 연락해 주세요.**

유정옥 사모의 옥중 편지 중 (전체 글은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유정옥 사모 소식에 있습니다.)

윤*향

무언가에 쫓기듯 큰 눈을 설 새 없이 유난히 밝힌다. 그녀는 처음엔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저녁쯤 되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자신은 여기에 와서 우선 방 대장이 누구인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내가 제일 먼저 들어온 대장 같은데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전체 얼굴에 기쁨이 만연하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했다. 우리는 한바탕 웃었다.

그녀는 키가 작고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생활이 어려울 때 부동산 브로커의 유혹에 빠진 것이다.

인천에 집 7채, 서울 종로 근처에 오피스텔 6채를 본인에게 동기를 내라고 했다. 처음에는 부동산 브로커가 경통전세를 놓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그래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오르니까 그때만 기다렸던 것이다. 자기는 브로커가 대출받을 때 가서 자신의 이름에 서명만 했다고 했다.

총액 4,250,000,000원.

내가 "4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니 그제 무슨 소리냐며, 자신은 4억 2천 5백만 원인 줄 알았다고 했다. 전체 총액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서에서 조사 도중 "내일은 영장실질심사를 합니다"라고 해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판사가 당신을 혼자 만나자는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것이 겁이나 아반도주를 했다.

부산, 마산... 도망 다니다가 지인 언니에게 3천만 원을 좀 해달라, 변호사를 써야 할 것 같다고 부탁 전화를 했다. 한 달을 도망 다니는 동안 밥도 하루에 한 그릇만 먹고 돈을 아꼈다.

그 언니가 돈이 되었으니 오라고 해서 약속된 카페에 가서 언니를 초조히 기다렸는데, 언니 대신 덜컥 경찰이 자신을 잡았다. 경찰이 언니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것이다.

그래서 유치장에 9일을 있었다고 한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40원. 혼자 넓은 유리창 안에 있으니 무섭고 지루했다.

그런데 경찰차를 타고 중앙지방법원에 갔다가 재판 끝난 남자 수형자들과 함께 이곳에 온 것이다. 수갑을 차고 또 고기 엮듯 밧줄로 한 명 한 명 이어서 손은 물론 가슴도 묶여 이곳에 온 것이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배급받았다. 그녀는 너무 맛있으며 정신없이 밥을 먹었다.

울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은 도망갔었기 때문에 형이 높은 것이지만 처리리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다.

우리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전해주었다.

그녀는 내가 왜 얼굴에 빛이 났는지 알 것 같으면서, 자신은 죄 많은 인생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다.

나는 영접 기도를 시켰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녀는 한 달 동안 도망 다니기를 즐겼다고 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를 어떻게 만났겠냐고 신이 난 듯 자꾸만 나에게 물었다.
이젠 예수님 잘 믿고 나처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기쁨이 가득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들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피기를 기뻐하신다.
"이 이 방에 있었으면 좋겠다. 자신은 형을 10년을 받든지 20년을 받든지 이 방에 나와 같이 있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좋아했다.
그녀는 형기를 마치고 나가서 꼭 '소중한사람들'에 와서 봉사하겠다고 자신의 다짐을 말한다.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말해도 눈물로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한다.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예수님! 걱정 마세요. 이렇게 이들 속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게요.

박*미

눈물도 없이 장백한 얼굴로 한 소녀가 우리 신입방에 들어왔다. 키가 큰 소녀는 수려한 얼굴에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그의 직목은 특수상해죄이다. 그 누구도 그 소녀가 특수상해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할 것이다. 1심 재판 후 수감에 채워져 이곳으로 왔다. 남자 수형수들과 함께 왔다고 한다. 여자는 오직 한 명.
이 소녀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5년간 JMS(정명석)에 있었다. 이곳에서 정명석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 정명석은 학교도 안 보내고 대학교 못 가게 했다.
정명석에게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으나, 벌써 항우울증 약을 9달이나 먹는 불쌍한 소녀였다. 이 소녀는 남성들에 대한 적개심이 많았다. 정명석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 낙태까지 했다고 한다.
어느 날 소녀는 이태원에 갔다가 여자 노숙인들을 만났다. 술에 취하여 여자 노숙인에게 밥을 사주고 돈도 다 주고 옷까지 벗어 주었다. 그 장면을 유심히 보던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온 남자가 관심을 보였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 남자도 이 소녀를 강간하고 감금했다. 밖에 나갔다가 오면 소녀는 강간의 먹이가 되었다.
그녀는 그날 더 이상 이 남자의 노리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내 몸에 손대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가위를 들고 남자를 위협했다. 그 남자가 가위 가까이와 가위를 빼앗았다. 그 과정에서 그 남자 손에 가위로 인한 상처가 조금 있었다.
이 남자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전에 찍어 놓은 소녀의 알몸을 공개했다.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이 영상을 합의하에 성관계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가위로 조금 다쳤는데 3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 소녀의 견해는 판사에게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소녀가 가해자가 된 것이다.

소녀는 정명석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새 길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천지 이만희는 나간 사람들이 이만희가 왜 잘못 가르치는지 상담소도 많은 것 같은데, 정명석은 그런 길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 신입방이 천국이라고 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소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다.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다.
우리 방에 음식도 제일 마지막에 줘서 국은 국물이 말랐다. 아무것도 살 수도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 방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간절히 기도하는 방이었다.
첫 주일을 맞았다. 우리 신입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는 나의 말에 모두 기뻐하며 한자리에 앉았다.
찬양은 드릴 수 없어서 내가 소리 내어 읽었다. 설교는 '사도신경'을 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다.
이 사도신경에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를 듣는 이들은 가슴에 새겼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튿날인 월요일, 우리는 나이별로 또 다른 죄목별로 헤어져야 했다.
우리는 몇 년이나 살았던 사람처럼 눈물로, 눈물로 서로의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지금 만났으니 우리는 또다시 만날 것을 믿었다. 그때는 이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것을 믿으며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70세, 68세, 52세가 생활하는 방으로 옮겨졌다. 이 방에서는 내가 막내다. 이 방의 대장은 52세 신○원 자매다.
이 이 방에서도 하나님이 다음 주일 예배드리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굳게 믿는다.

소중한사람들 리트릿 센터(Retreat Center)

말씀과 자연, 심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자처럼 로덤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심을 얻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 예수 믿는 누구나 심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절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시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



리트릿 센터 이용 후기

리트릿 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후기를 담았습니다.

1. 김○미 (4일이용)

몇몇 블로그를 통해 환경과 시설 음식, 프로그램들을 대략 알았으나 실제 와보니 그 소개나 체험의 글들 이상으로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예배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시며 회개로 인도되어지고 특히 저녁예배후 이어지는 기도회는 정말정말 간절한만큼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안에서 한 형제 자매일 뿐 아니라 암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함께 격려하며 섬기며 주님께 항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육간에 쇠약해진 암환우들을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극진히 섬겨주시는 목사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훈련받는 모든 환우들께서 강건해지셔서 주님의 용사로 일어나 주님께 왕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임○순(6일이용)

의정부 목회자임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때 목회자님은 암환우였고 나는 암환우가 아니었는데 반년이 흐르니 내가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믿음없는 저로서는 하루도 보내기 힘들거라 생각했는데 하루에 2번 예배시간인데도 이제는 하루가 짧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세워진 '소중한 사람들' 암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침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어진 공간에서 모든 암환자들이 완치판정받고 집으로 갈수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3. 양○자(6일이용)

작년 4월 유방암진단후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가 올해 1월에 끝났습니다. 지쳐버린 육신과 상한 마음을 회복하려고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를 찾은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보았고 절체절명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환우들의 밝고 힘찬 모습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아한 기타소리로 시작하는 하루 두 번의 예배와 삶이 녹아난 이성일목사님의 설교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마음에 감동과 위로가 되었고 뜨거운 중보기도 시간은 하늘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청평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확장소망헌금●

김영래(1,000,000)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이해욱(100,000) 임종국(300,000) 임종국(500,000) 전두희(50,000)
최정미(150,000)

●목적헌금●

조은래(7,069,070)

●천사헌금●

신현욱(1,000,000) 임종국(1,000,000) 박세준(1,000,000) 한한수(1,000,000) 추종석(1,000,000) 김영희(1,000,000) 김선민(1,000,000)
허준(1,000,000) 박정희(1,000,000) 김란수(1,000,000) 송영수(1,000,000)

●십일조●

김효숙(100,000) 구속희(320,000) 구현주(400,000) 김예중(50,000) 남승범(200,000) 박갑진(266,000) 박선인(130,000)
박용범(180,000) 박용범(280,000) 배운경(60,000) 변영미(180,000) 변영미(20,000) 심문화(260,000) 이성일(300,000)
최영자(130,000) 최은희(200,000) 추연국(150,000) 황우진(100,000)

●감사헌금●

강금숙(10,000) 고선하(30,000) 곽효정(270,000) 구속희(300,000) 권점옥(150,000) 김계숙(50,000) 김나용(50,000)
김덕용(50,000) 김영식(50,000) 김병식(400,000) 김보영(250,000) 김선민(40,000) 김산영(400,000) 김순금(500,000)
김영관(100,000) 김영미(50,000) 김예중(130,000) 김외숙(100,000) 김은혜(50,000) 김행림(50,000) 김현권(200,000)
김현순(40,000) 김혜은(20,000) 김효숙(200,000) 김홍덕(300,000) 남승범(150,000) 노은순권사아들(289,587) 류병연(100,000)
문병숙(20,000) 박경애(100,000) 박갑숙(100,000) 박봉순(20,000) 박봉희(130,000) 박선인(300,000) 박성희(50,000)
박정미(300,000) 박진숙박선영(20,000) 방연자(100,000) 방윤순(50,000) 배운경(500,000) 백인아(10,000) 백현미(20,000)
변영미(100,000) 서강일(50,000) 서예지(100,000) 서화영(100,000) 성안숙(50,000) 성혜숙(200,000) 송기승(30,000)
신소희(50,000) 신인환(600,000) 심태영(50,000) 양경림(50,000) 엄영란(150,000) 연영희(10,000) 엄매식(10,000)
오분순(200,000) 오임순(20,000) 오희순(400,000) 유옥열(100,000) 유정옥(190,000) 이광미(450,000) 이기열(300,000)
이대희(600,000) 이상길(20,000) 이상숙(20,000) 이상일(100,000) 이상종(50,000) 이상복(10,000) 이진우(100,000)
이혜숙(50,000) 이해욱(370,000) 이희진(100,000) 임경남(10,000) 임정희(50,000) 임유순(100,000) 임종국(1,500,000)
장정만(50,000) 전선희(30,000) 정경희(150,000) 정동문(50,000) 정동익(30,000) 정숙(50,000) 장이연(40,000)
장종순(100,000) 장태웅(300,000) 조옥선(20,000) 천정희(150,000) 최영자(110,000) 최영희(100,000) 최혜령(250,000)
추종석(100,000) 한창식(500,000) 한혜경(10,000) 허준(270,000) 황보순(100,000) 황순갑(300,000) 황우진(180,000)

●기관후원헌금●

가락제일교회(100,000) 계영산업(100,000) 목회자원센터(200,000) 서울서교회(100,000) 서울중앙교회(100,000) 왕송약국(500,000) 청주천사랑교회(100,000)
(비토달이엔씨(100,000) 두엘비(234,000)

●CMS헌금●

공은영(30,000) 권태준(10,000) 김명희(30,000) 김민정(20,000) 김성자(20,000) 김순금(100,000) 김영배(50,000)
김영신(30,000) 김운집(30,000) 김유진(10,000) 김인경(50,000) 김인숙(10,000) 김인열(20,000) 김조(30,000)
김지영(10,000) 김진영(10,000) 김현정(100,000) 김혜원(30,000) 김화연(20,000) 김효진(100,000) 나일주(100,000)
나지용(15,000) 단선화(50,000) 도주은(100,000) 문희순(10,000) 박경미(20,000) 박성환(50,000) 박연정(10,000)
박영자(20,000) 박원준(50,000) 박원희(30,000) 박정우(30,000) 박효정(30,000) 변영미(50,000) 서종열(10,000)
송필재(30,000) 양운정(100,000) 오분순(20,000) 오선희(50,000) 유미행(10,000) 윤성복(50,000) 윤인초(10,000)
이금순(50,000) 이다연(10,000) 이미진(10,000) 이상림(100,000) 이소영(30,000) 이승은(30,000) 이옥란(10,000)
이은숙(10,000) 이정자(50,000) 이주연(10,000) 이준영(10,000) 이자연(100,000) 이찬선(5,000) 임귀례(1,000,000)
임성숙(30,000) 장미경(20,000) 장선숙(10,000) 장소현(30,000) 장승아(10,000) 장호형(50,000) 정경희(30,000)
장미선(50,000) 정예은(5,000) 정우현(30,000) 정은경(20,000) 정일금(10,000) 정현영(50,000) 조남남(20,000)
조영실(40,000) 최성(20,000) 최신숙(10,000) 최은주(10,000) 최정임(20,000) 하정민(10,000) 하정숙(20,000)
하혜원(10,000) 허경순(50,000) 홍금주(10,000) 홍덕기(50,000) 황윤경(100,000) 황준해(20,000)

청평힐링센터 2025년 10월 -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목적헌금	7,069,070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834,937
천사헌금	6,000,000	자동차 합부금 및 보험료	713,000
십일조	3,626,000	식자재구입비	11,054,890
감사헌금	15,899,587	전기요금	3,333,740
CMS헌금	5,020,000	가스요금	729,600
		화재보험료	1,200,000
		안전관리비	539,500
		우편발송비	224,160
		홈페이지/ CMS사용료	297,500
		KT요금	55,200
		집기구입비	1,354,661
		급여안전비	17,157,850
		사회보장보험료	3,146,450
금월 수입 합계	37,614,657	지출 총액	40,641,488
전월 이월금	5,441,078		
총 수입 합계	43,055,735	금월 잔액	2,414,247

소중한사람들 - 확장소망헌금명단

1월: 강정운(40,000)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단선화(150,000) 이해형(100,000) 이해욱(100,000) 전두희(30,000)
2월: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김연자(500,000) 도문식(300,000) 문화자(100,000) 이해형(100,000) 전두희(30,000) 주혜선(10,000) 최형자(30,000)
3월: 감사헌금(158,512)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김명우(1,000,000) 김점숙(50,000) 도문식(300,000) 도주은(1,000,000) 이재희(2,000,000) 이해형(100,000) 전두희(30,000) 주혜선(10,000) 최형자(30,000) 최영자(200,000) 확장소망헌금(5,000,000)
4월: 강정운(20,000) 권경희(1,000,000) 김병식(100,000) 김예송(1,000,000) 도문식(300,000) 이재희(2,500,000) 이해형(100,000) 이해형(100,000) 전두희(30,000) 주혜선(10,000)
5월: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도문식(300,000) 소재길(100,000) 이정화(1,000,000) 이해형(100,000) 이해형(100,000) 이해형(100,000) 이해형(100,000) 최정미(100,000)

6월: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도문식(300,000) 예수은혜(200,000) 이해형(100,000) 이해형(100,000) 전두희(30,000) 전두희(30,000) 주혜선(10,000) 최형자(200,000) 최정미(150,000)
7월: 강정운(20,000) 김계숙(50,000) 김병식(100,000) 도문식(300,000) 박효정(1,000,000) 임종국(500,000) 전두희(1,000,000) 전두희(30,000) 최정미(200,000)
8월: 박상준(100,000)
9월: 강정운(20,000)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도문식(300,000) 이해형(100,000) 이해욱(100,000) 최정미(150,000) 한치용(30,000) 한치용(200,000)
10월: 김영래(1,000,000)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이해욱(100,000) 임종국(300,000) 임종국(500,000) 전두희(50,000) 최정미(150,000)

* 10월말 현재 총, 175,498,512원

소중한사람들 확장소망헌금 후원 계좌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 소나무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5년 10월 새앗헌금 후원 : 김가람(3,000,000) 김경섭,오희자(50,000) 김행심(10,000) 이만석(10,000) 이상숙(20,000) 이순미(50,000) 장항자(30,000) 자유선(10,000) 한종석(200,000)

2025년 10월 소나무헌금 지출 : 남O범(624,000) 신O환(145,280) 신O환(153,280)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쉼터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 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향,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2210-9106).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업에 천사회원이 되셔서 기도 해 주시고 후원에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10월 가입자 명단 (11명)

588 신현옥 589 임종국 590 박재준 591 한현수 592 추종석 593 김형희 594 김진민 595 허준 596 박정희 597 김관수 598 송영수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영희	2 최민희	3 최민희	4 유재민	5 이영희	6 김수영	7 김수영	8 이영희	9 조주영	10 김수영	11 박정희	12 정동영	13 조현민	14 정동영
15 이영희	16 박정희	17 이영희	18 유재민	19 조주영	20 김수영	21 김수영	22 이영희	23 박정희	24 김수영	25 정동영	26 정동영	27 조현민	28 정동영
29 김수영	30 김수영	31 김수영	32 유재민	33 김수영	34 김수영	35 김수영	36 김수영	37 김수영	38 김수영	39 김수영	40 김수영	41 김수영	42 김수영
43 김수영	44 김수영	45 김수영	46 김수영	47 김수영	48 김수영	49 김수영	50 김수영	51 김수영	52 김수영	53 김수영	54 김수영	55 김수영	56 김수영
57 김수영	58 김수영	59 김수영	60 김수영	61 김수영	62 김수영	63 김수영	64 김수영	65 김수영	66 김수영	67 김수영	68 김수영	69 김수영	70 김수영
71 김수영	72 김수영	73 김수영	74 김수영	75 김수영	76 김수영	77 김수영	78 김수영	79 김수영	80 김수영	81 김수영	82 김수영	83 김수영	84 김수영
85 김수영	86 김수영	87 김수영	88 김수영	89 김수영	90 김수영	91 김수영	92 김수영	93 김수영	94 김수영	95 김수영	96 김수영	97 김수영	98 김수영
99 김수영	100 김수영	101 김수영	102 김수영	103 김수영	104 김수영	105 김수영	106 김수영	107 김수영	108 김수영	109 김수영	110 김수영	111 김수영	112 김수영
113 김수영	114 김수영	115 김수영	116 김수영	117 김수영	118 김수영	119 김수영	120 김수영	121 김수영	122 김수영	123 김수영	124 김수영	125 김수영	126 김수영
127 김수영	128 김수영	129 김수영	130 김수영	131 김수영	132 김수영	133 김수영	134 김수영	135 김수영	136 김수영	137 김수영	138 김수영	139 김수영	140 김수영
141 김수영	142 김수영	143 김수영	144 김수영	145 김수영	146 김수영	147 김수영	148 김수영	149 김수영	150 김수영	151 김수영	152 김수영	153 김수영	154 김수영
155 김수영	156 김수영	157 김수영	158 김수영	159 김수영	160 김수영	161 김수영	162 김수영	163 김수영	164 김수영	165 김수영	166 김수영	167 김수영	168 김수영
169 김수영	170 김수영	171 김수영	172 김수영	173 김수영	174 김수영	175 김수영	176 김수영	177 김수영	178 김수영	179 김수영	180 김수영	181 김수영	182 김수영
183 김수영	184 김수영	185 김수영	186 김수영	187 김수영	188 김수영	189 김수영	190 김수영	191 김수영	192 김수영	193 김수영	194 김수영	195 김수영	196 김수영
197 김수영	198 김수영	199 김수영	200 김수영	201 김수영	202 김수영	203 김수영	204 김수영	205 김수영	206 김수영	207 김수영	208 김수영	209 김수영	210 김수영
211 김수영	212 김수영	213 김수영	214 김수영	215 김수영	216 김수영	217 김수영	218 김수영	219 김수영	220 김수영	221 김수영	222 김수영	223 김수영	224 김수영
225 김수영	226 김수영	227 김수영	228 김수영	229 김수영	230 김수영	231 김수영	232 김수영	233 김수영	234 김수영	235 김수영	236 김수영	237 김수영	238 김수영
239 김수영	240 김수영	241 김수영	242 김수영	243 김수영	244 김수영	245 김수영	246 김수영	247 김수영	248 김수영	249 김수영	250 김수영	251 김수영	252 김수영
253 김수영	254 김수영	255 김수영	256 김수영	257 김수영	258 김수영	259 김수영	260 김수영	261 김수영	262 김수영	263 김수영	264 김수영	265 김수영	266 김수영
267 김수영	268 김수영	269 김수영	270 김수영	271 김수영	272 김수영	273 김수영	274 김수영	275 김수영	276 김수영	277 김수영	278 김수영	279 김수영	280 김수영
281 김수영	282 김수영	283 김수영	284 김수영	285 김수영	286 김수영	287 김수영	288 김수영	289 김수영	290 김수영	291 김수영	292 김수영	293 김수영	294 김수영
295 김수영	296 김수영	297 김수영	298 김수영	299 김수영	300 김수영	301 김수영	302 김수영	303 김수영	304 김수영	305 김수영	306 김수영	307 김수영	308 김수영
309 김수영	310 김수영	311 김수영	312 김수영	313 김수영	314 김수영	315 김수영	316 김수영	317 김수영	318 김수영	319 김수영	320 김수영	321 김수영	322 김수영
323 김수영	324 김수영	325 김수영	326 김수영	327 김수영	328 김수영	329 김수영	330 김수영	331 김수영	332 김수영	333 김수영	334 김수영	335 김수영	336 김수영
337 김수영	338 김수영	339 김수영	340 김수영	341 김수영	342 김수영	343 김수영	344 김수영	345 김수영	346 김수영	347 김수영	348 김수영	349 김수영	350 김수영
351 김수영	352 김수영	353 김수영	354 김수영	355 김수영	356 김수영	357 김수영	358 김수영	359 김수영	360 김수영	361 김수영	362 김수영	363 김수영	364 김수영
365 김수영	366 김수영	367 김수영	368 김수영	369 김수영	370 김수영	371 김수영	372 김수영	373 김수영	374 김수영	375 김수영	376 김수영	377 김수영	378 김수영
379 김수영	380 김수영	381 김수영	382 김수영	383 김수영	384 김수영	385 김수영	386 김수영	387 김수영	388 김수영	389 김수영	390 김수영	391 김수영	392 김수영
393 김수영	394 김수영	395 김수영	396 김수영	397 김수영	398 김수영	399 김수영	400 김수영	401 김수영	402 김수영	403 김수영	404 김수영	405 김수영	406 김수영
407 김수영	408 김수영	409 김수영	410 김수영	411 김수영	412 김수영	413 김수영	414 김수영	415 김수영	416 김수영	417 김수영	418 김수영	419 김수영	420 김수영
421 김수영	422 김수영	423 김수영	424 김수영	425 김수영	426 김수영	427 김수영	428 김수영	429 김수영	430 김수영	431 김수영	432 김수영	433 김수영	434 김수영
435 김수영	436 김수영	437 김수영	438 김수영	439 김수영	440 김수영	441 김수영	442 김수영	443 김수영	444 김수영	445 김수영	446 김수영	447 김수영	448 김수영
449 김수영	450 김수영	451 김수영	452 김수영	453 김수영	454 김수영	455 김수영	456 김수영	457 김수영	458 김수영	459 김수영	460 김수영	461 김수영	462 김수영
463 김수영	464 김수영	465 김수영	466 김수영	467 김수영	468 김수영	469 김수영	470 김수영	471 김수영	472 김수영	473 김수영	474 김수영	475 김수영	476 김수영
477 김수영	478 김수영	479 김수영	480 김수영	481 김수영	482 김수영	483 김수영	484 김수영	485 김수영	486 김수영	487 김수영	488 김수영	489 김수영	490 김수영
491 김수영	492 김수영	493 김수영	494 김수영	495 김수영	496 김수영	497 김수영	498 김수영	499 김수영	500 김수영	501 김수영	502 김수영	503 김수영	504 김수영
505 김수영	506 김수영	507 김수영	508 김수영	509 김수영	510 김수영	511 김수영	512 김수영	513 김수영	514 김수영	515 김수영	516 김수영	517 김수영	518 김수영
519 김수영	520 김수영	521 김수영	522 김수영	523 김수영	524 김수영	525 김수영	526 김수영	527 김수영	528 김수영	529 김수영	530 김수영	531 김수영	532 김수영
533 김수영	534 김수영	535 김수영	536 김수영	537 김수영	538 김수영	539 김수영	540 김수영	541 김수영	542 김수영	543 김수영	544 김수영	545 김수영	546 김수영
547 김수영	548 김수영	549 김수영	550 김수영	551 김수영	552 김수영	553 김수영	554 김수영	555 김수영	556 김수영	557 김수영	558 김수영	559 김수영	560 김수영
561 김수영	562 김수영	563 김수영	564 김수영	565 김수영	566 김수영	567 김수영	568 김수영	569 김수영	570 김수영	571 김수영	572 김수영	573 김수영	574 김수영
575 김수영	576 김수영	577 김수영	578 김수영	579 김수영	580 김수영	581 김수영	582 김수영	583 김수영	584 김수영	585 김수영	586 김수영	587 김수영	588 김수영
589 김수영	590 김수영	591 김수영	592 김수영	593 김수영	594 김수영	595 김수영	596 김수영	597 김수영	598 김수영	599 김수영	600 김수영	601 김수영	602 김수영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싸앗헌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2-365-9106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청평힐링센터 힐링센터



▲ 13기 전도복발 수여식



▲ 매일 아침예배



▲ 성경1독 시상



▲ 야외예배 산정호수



▲ 야외예배 산정호수



▲ 예배



▲ 원적외선



▲ 전도복발 서울역현장실습



▲ 전도복발 수료기념사진



▲ 세탁실 청소



▲ 등산



▲ 아침제조

청평힐링센터후원물품



▲ 신인화 포도 ▲ 추종석 과일 ▲ 임종국 대추 ▲ 임종국 채소 ▲ 임종국 채소 ▲ 신인화 흑미 ▲ 전상희 포도 ▲ 강덕희 포도
▲ 전정희 감지 ▲ 구숙희 방울토마토 ▲ 김와숙 생선 ▲ 정종순 가지떡 ▲ 조숙 마스크 후면 ▲ 이혜옥 말차액젓 ▲ 오희은 홍시

청평 힐링센터 암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 배O경(매암47) - 특성항암(도세탁셀) 부작용 부종으로 중단하고 1상 신약 임상연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순차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 곽O정(난소암47) - 소장 수술 이후 소변, 흡수가 안 되어 일주일째 두 번 영양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소장기능이 정상화 되어 소화, 흡수 잘 되고 영양성분이 골고루 잘 전달되어 체력과 면역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체중 40kg 이상으로 회복되게)
- 오O순(매암) -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미안한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자고 견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 임O국(임파결암47) - 위암, 골수암 회복하여 주시고 불면증과 목, 허리, 고관절, 무릎 정상으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주시옵소서
- 이O진(난소암47,림프전이) - 병과목이 고침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요양원에 계시는 뇌경색 중증장애인 영아의 굶고 내려앉은 척추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아픈 가족들을 돌보는 언니의 건강도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 김O민(유방암) - 10/21일 결과가 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판정받기까지 그 이후의 모든 삶이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으로 집중하게 하옵소서
- 구O혜(유방암,간배전) - 검사 결과 암이 더 커지거나 전이가 없는 상황이라 웰퍼다 항암 2회분 받아 복용중입니다. 큰 부작용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 성O숙(매암) - 폐 수술 후 호흡이 어렵습니다. 호흡이 잘 되어서 대화와 운동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명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 황O진(유방암,간전이) - 암말 말부종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높아져 전 전이암 완전관해 되도록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고쳐 주시며, 자녀들이 장성하여 아이를 낳을 때까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자리를 강건히 지켜 내도록 하옵소서
- 이O옥(유방암,흉선암) - 피부림프종으로 일주일째 세 번씩 광선치료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저의 영혼육에 늘 임하시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주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 김O중(골수다발종) - 날로날로 치유되는 저를 보면서 가족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길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애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연약한 저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신 라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전O혜(매암) - 이번 진료에서 폐가 좋아졌고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 신O환(간암) -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인들 고해사역을 하면서 15년 전 간암이 몰래 초에 재발하여 6월11일 간이식을 하였습니다. 간이식 수술 후 회복중에 항경련에 암이 잔여된 것을 알게 되어 시술하고 현재 항암을 하면서 한센인들의 고통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간암이 회복되어 다시 그곳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 추O석(항암,신장암,폐,오로세포암전이) - 자해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잘 구별할 수 있게 하시며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암을 이길 힘을 주시옵고 줄 기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삶을 살게 하옵소서
- 박O미(매전이,간암) - 치료의 모든 과정에 임하여서 완치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30년의 세월을 더 하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O혜(자궁경암47) - 종관자살에서 한 달간 위기를 극복하고 항암중에 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이 아닌 면역항암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오O순(대장암,간전이) - 9/22일 대장암 수술 후 항암을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항암을 잘 마치길 기도합니다.
- 방O자(매암) - 주님 보호하시며 치료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암이 절반이나 줄어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치료도 치유의 능력으로 기쁨 부어 주소서
- 김O매(항암,복막,골반전이) - 항상 형태, 자해님들을 섬기는 자세로 잘 지내게 해주시고 암으로 인한 고통, 환난의 시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 잘 알고 내 자신이 좀 더 나아가고 성숙되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 김O금(담낭암) -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전이된 암들이 소멸되고 새로운 표적 항암으로 담낭암을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 김O숙(대장암) - 4차 항암치료 중입니다. 8차 항암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 송O수(위암) - 11/4일 CT에 좋은 결과 주셔서 만인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소화흡수가 잘 되어서 체중이 증가되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 김O권(뇌종양) -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옵소서
- 조O(매암) - 수술받은 부위가 깨끗하게 치료되어 통증과 기침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다른 곳으로 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 강O생(비인두암) - 자가암지 못하는 최까지 자책하며 죄사함을 주시옵고 나를 낳아주어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게 하옵소서
- 박O현(위암) - 위암 수술 후 합병증으로 담낭염, 췌장염 염증이 있습니다. 깨끗이 치유되기를 소망하며 11/4일 CT 검사 결과가 좋기를 확망합니다..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약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목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리를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생명 · 치유 · 봉사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8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8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 주신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1시부터 진료가 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1:50~3:40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108회가 되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10월에 강해 중인 사무엘상 4-9장 말씀을 통해 기도한다. 소중한사람들 사역 공동의 기도 개인 요청기도를 함께 중보하며, 아픈 자들의 치유,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중보기도제목

1. 소중한사람들 사역

- 1) 노숙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상담, 사역,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2.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얀마,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베트남

4. 치유 - 신형진, 최은영, 김정선, 정종대, 정은영, 황우진, 이혜옥, 박효정, 배운경, 김홍덕, 정소녀, 임종국, 오희순, 방연자, 천정희, 김신민, 신현옥, 허준, 남승범, 신인환, 이희진, 김순금, 김예중, 황순갑, 임경근, 김현순, 이광미, 김와숙, 추종석, 김요숙, 강영생, 임소혜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5.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준, 김현중,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희,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민,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영, 이순조, 김지은, 김형식, 권유승,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준기, 최영자, 이경자, 이엘리,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설, 구현주, 한치웅, 신종석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신형진님이 9차까지 맞은 스프린라 주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차 이후 주사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주사를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프린라 주사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신형진이 다시 스프린라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4935-2445<문자로>

서울역 이야기

서울역 전도

소중한사람들은 매주 주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도자들은 노숙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적게나마 나누어 드리고,
노숙인들은 감사로 화답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기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도자들은 그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사람들입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



▲ 강동은누리교회



▲ 개인동사자



▲ 돌봄학교



▲ 모래내교회



▲ 서부침례교회



▲ 서빙고은누리교회



▲ 세빛소



▲ 식사 전경



▲ 식사 전경



▲ 에클레시아



▲ 이대부초학부모성경동독팀



▲ 이삭회37기



▲ 이화유지원



▲ 조이어스교회



▲ 조이물교회



▲ 함께울려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0시 30분 예배와 점심나눔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21년을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70-10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서부침례교회(4일), 이대부초등교 학부모성경동독팀(7,14,21,28일), 조이물교회(8일), 에클레시아(11일), 조이어스교회(14일) 세빛소(15일), 이화유지원(16,30일), 함께울려(18일), 이삭회37기(20일), 서빙고은누리교회(21일), 돌봄학교(22일), 강동은누리교회(24일), 모래내교회(25일)가 봉사에 주셨습니다.

개인 봉사자들은

권경희, 김순희, 김영옥, 박봉희, 박진희, 송경옥, 손수정, 송홍렬, 심지현, 이소영, 이향자, 임윤업, 전두희, 정경희, 조희진, 최경희, 최금련, 황보혜, 한현희 등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용수, 송기승, 이지영, 허정만, 한송희, 김경숙, 김광래, 정경희, 박인혜, 박문희, 장종숙, 강덕희, 김명옥, 이주희, 윤화, 최영화...개인 봉사자들이 주일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전도팀: 이주희, 김명옥, 강원봉, 김정미, 송기승, 최영화)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월요일 이범주, 화요일 김재정, 수요일 정기중, 목요일 조진영,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이상웅, 주일 이상일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다양한 봉사 참여

다양한 봉사로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이대부속초성경통독팀과 소중한찬양단, 박종수목사님, 이윤수전도사님
- * 특송으로 예배를 아름답게 하신 서부침례교회, 돌봄학교 봄보이스앙상블
- * 소식지 우편물 작업 지원 봉사를 해주신 이대부초성경통독팀
- * 14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
- * 16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이발 미용 봉사단
- * 간식 나눔과 후원물품 나눔으로 함께 봉사에 참여해 주신 팀과 개인봉사들

모두 감사합니다



▲ 서울역 전도회



▲ 전도회 20



▲ 서부침례교회 특송



▲ 돌봄학교 봄보이스앙상블 특송



▲ 후원물 작업 지원



▲ 10월 후원 물품 전달



▲ 이대부초성경통독팀 후원물품 작업 지원



▲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 이대부초성경통독팀 후원



▲ 소중한사람들



▲ 이대부



▲ 박종수목사님 찬양

후원물품

- * 서울역 전도를 위한 커피를 후원하신 김명옥님
 - * 음식/부식을 준비해 오신 에클레시아, 조이이스교회, 이삭회37기
 - * 파프리카를 후원하신 이소영님 * 쌀을 보내주신 수0청조공 * 건강보조제를 보내주신 해밀레라이프
 - * 돼지고기를 후원해 주신 (주)노아 * 소고기를 후원해 주신 송기승님, 이삭회37기, 하나프라이
 - * 겨울패딩을 보내주신 이기열, 정은영님
- 빵과 과일, 그리고 여러 후원 물품으로 노숙인분들을 위해 섬겨주신 후원자 분들의 섬김 감사드립니다.

				10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10/1	루드벙크	빵/부식	5박스	10/2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2	김명옥	커피	6박스	10/5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0/2	루드벙크	빵/부식	5박스	10/5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0/2	이소영	파프리카	2박스	10/5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10	루드벙크	빵/부식	5박스	10/12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0/11	에클레시아	바나나	4박스	10/11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13	루드벙크	빵/부식	5박스	10/14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14	조이이스교회	송편	100명분	10/14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15	루드벙크	빵/부식	5박스	10/16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17	루드벙크	빵/부식	5박스	10/19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0/17	이삭회37기	소고기	100명분	10/20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20	수0청조공	쌀	1로	10/21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22	루드벙크	빵/부식	5박스	10/23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22	해밀레라이프	건강보조제	8박스	10/23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22	송기승	고기	8박스	10/23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22	이기열, 정은영	겨울패딩	4박스	10/28	나눔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24	루드벙크	빵/부식	5박스	10/26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0/27	루드벙크	빵/부식	5박스	10/28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29	루드벙크	빵/부식	5박스	10/30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31	루드벙크	빵/부식	5박스	11/2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0/31	하나프라이	소고기	10박스	11/1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31	(주)노아	돼지고기	10박스	11/1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 김명옥 커피 1000인분



▲ 에클레시아 바나나주원



▲ 이소영 파프리카



▲ 조이이스교회 송



▲ 이삭회37기 고기 후원



▲ 수0청조공 쌀10kg 후원



▲ 해밀레라이프 건강보조제 후원



▲ 노아 고기10박스 후원



▲ 하나프라이 소고기 96kg



▲ 이기열 정은영 겨울패딩



▲ 송기승 소고기

5-7월 소식

아이티에서는 강단에 의한 폭력이 더욱 잔인해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요소인 먹고, 자고, 입는 것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불법 입국하여 사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듯하며, 매일 오만 명 이상이 아이티로 추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단의 거주지 정령으로 인해 피난민은 13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도움이나 기댈 곳 없이 범죄의 온상이 되어 떠돌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더욱이 작년 8월부터 병원과 국제 구호단체의 의료 시설마저 강단에 게 파괴되면서, 그나마 받을 수 있었던 치료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피해를 복구 중인 재배마을 사진)

여름에 발생한 폭우로 인한 재배마을 홍수는 중장비를 동원하여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홍수 피해는 마무리 되었지만 이와 함께 발생한 전염병으로 아이티의 아이들은 고열, 기침, 두통에 시달리고 있어 여름 캠프에 나오기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이 아이들이 질병으로 신음하는 고통, 매일 겪는 처절한 배고픔, 홍수로 인한 심각한 생활고, 그리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강들로부터 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성장을 간구합니다.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위로받고 존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귀퉁마을은 강단이 들어 닦쳐 학교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던 중 6월 27일, 오랜만에 강 두목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강들의 태도가 잠시 주춤함을 타, 일 년 내내 가슴 졸이며 학교를 운영해 온 선생님들이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리적으로 지쳐 있던 선생님들은 오랜만에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시간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학교는 6월 27일을 기점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갔으며, 방학 기간 중 성경 공부, 영어 공부, 게임 등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2025년 여름캠프 사진)

8-10월 소식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지리라는 희망은 늘 품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현재는 작년보다 더욱 어렵고, 지난달과 비교해도 단 1%의 변화 없이 강들이 나라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유지하기 힘든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인과 테러로 인해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은 불가능하며, 강들이 거리 노점상들의 문돈까지 착취해가니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 캠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초에 치러진 8학년 학력 측정 국가고시에서는 18명 중 15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일 년 내내 강단의 방해 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결과입니다.



(루빈마을, 재배마을, 귀퉁마을 학교 등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사진)

아이티 교육부는 당초 9월 15일부터 자체적으로 개학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으나, 10월 1일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라는 최종 지침이 늦게 내려옴에 따라, 이에 맞춰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남은 학기와 내년 2026년 학기가 강단의 방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새학기 담당 선생님들 사진)

원인 모를 전염병은 자연 치유를 통해 어느 정도 진정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는 아직까지 태풍이 아이티를 직접 강타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의 태풍 시즌 역시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경민/ 재한 드림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번 10월은 정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많지만 어느 상황에서도 이웃을 돕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거친 손으로 웃으며 고맙다고 악수를 건네는 노숙인의 표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

수줍은 듯 모자로 머리를 감춘 암 환우들이 전도폭발 실습을 위해 서울 소중한사람들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복음을 전하는 밝은 얼굴빛은 모자로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십일조로, 목적헌금으로, 감사헌금, 선교헌금, 기관헌금, CMS, 천사후원헌금, 소나무헌금, 확장헌금, 교회헌금, 고아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소식지에 기록하며 다시금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시고 직접 갚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선교헌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시시각각 변하는 외국의 사정을 주시하며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할 때에 전해주고자 늘 살피고 있습니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시는 손길을 통하여 암 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임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 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환자

신형진, 최유진, 황우진, 이혜옥, 권효정, 배윤경, 김흥재, 오희순, 방연자, 김순금, 김예종, 김현권, 추종석, 구숙희, 박지현, 천정희, 임종국, 신인환, 박경미, 강신영, 이희진, 오보순, 성민숙, 박성희, 조숙, 김선진, 권효정, 김효숙, 강영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래, 김현중,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민,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영,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승,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준기, 최영자, 이경숙, 이엘리,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철, 구현주, 박철민 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1년을 한결같이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한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한사람들 드림

2025년 10월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십일조 헌금●

강덕희(38,000)	강성희(200,000)	강원봉(400,000)	강지현(100,000)	고무원(200,000)	곽효정(440,000)
구속희(320,000)	구현주(1,000,000)	김갑희(710,000)	김광래,정경희(240,000)	김귀임(1,000,000)	김영림(100,000)
김영선(50,000)	김영진,손미나(2,000,000)	김예중(50,000)	김용수,송연숙(350,000)	김현숙(800,000)	김효숙(100,000)
김희정(970,000)	나은선(300,000)	남승범(200,000)	노아(1,000,000)	무명(20,000)	문영숙(200,000)
박민희(110,000)	박용범(460,000)	박혜수(500,000)	박해정(1,020,000)	배윤경(60,000)	살롬(300,000)
상찬영(750,000)	송기승(160,000)	신은미(500,000)	신형진(500,000)	신혜영(250,000)	안유진(300,000)
안현진,이영현(300,000)	엄춘란(600,000)	유광현(320,000)	유애스터(330,000)	유영재(350,000)	유정옥(150,000)
윤원석(200,000)	이경희(200,000)	이교은(560,000)	이민순권사(300,000)	이성순(300,000)	이성용,이현나(550,000)
이세린(250,000)	이영관(310,000)	이은주(1,000,000)	이인수(20,000,000)	이현경(200,000)	이현정(200,000)
이현미(200,000)	임나리(650,000)	장종숙(150,000)	조경숙(300,000)	조미영(100,000)	조승희(1,000,000)
전승연(500,000)	최영자(130,000)	최진옥(400,000)	한은숙(400,000)		

●개인 감사헌금●

강원봉(100,000)	강윤옥(10,000)	곽혜란(50,000)	곽효정(270,000)	구명신(100,000)	구속희(300,000)
권정옥(150,000)	권정연(100,000)	급식후원(10,000)	김갑희(220,000)	김경숙(20,000)	김경식(10,000)
김나용(50,000)	김동민(10,000)	김미선(50,000)	김미영(20,000)	김미정(50,000)	김병식(420,000)
김선민(1,090,000)	김성희(30,000)	김순옥(100,000)	김영선(10,000)	김예중(80,000)	김용수,송연숙(200,000)
김은혁(50,000)	김이영(10,000)	김인수(40,000)	김정훈(10,000)	김종영(100,000)	김지미(20,000)
김태세(40,000)	김태영(100,000)	김행림(50,000)	김행삼(10,000)	김현권(200,000)	김현서(20,000)
김현숙(30,000)	김현순(50,000)	김홍숙(250,000)	김홍덕(500,000)	김화정(50,000)	나미정(100,000)
나종숙(40,000)	남승범(150,000)	노원관(30,000)	무명(301,000)	무명(126,000)	박도영(100,000)
박동준(10,000)	박명재(5,000)	박문희(60,000)	박봉희(10,000)	박성은(100,000)	박성희(50,000)
박세준(50,000)	박영빈(50,000)	박인혜(140,000)	박정미(300,000)	박재배(30,000)	박진희(50,000)
박해영(30,000)	박홍식(10,000)	방연자(100,000)	배윤경(500,000)	배윤희(40,000)	배희영(10,000)
변경자(20,000)	사모님사랑해요(100,000)	서보연(10,000)	서효숙(100,000)	성명숙,이경민(50,000)	성백훈(10,000)
성인숙(50,000)	송계순(30,000)	송기승(50,000)	송연숙(20,000)	신명순(120,000)	신인환(600,000)
심요열(10,000)	심태영(50,000)	심홍보(2,000)	안형옥(100,000)	양복길(13,000)	엄영란(150,000)
오경남(20,000)	오분순(200,000)	오신환(100,000)	오지석(100,000)	오희순(400,000)	유애선(110,000)
유옥열(100,000)	유재학(130,000)	유정옥(300,000)	유지상,황기용(200,000)	윤재운(30,000)	윤화(20,000)
이강혁,이강현(30,000)	이광미(750,000)	이기열(300,000)	이기형(40,000)	이갑성(30,000)	이대희(600,000)
이문숙(80,000)	이미말(100,000)	이선아(100,000)	이성용,이현나(750,000)	이성종(50,000)	이성혜(5,000)
이연옥(10,000)	이영관첫열매(2,540)	이영주(50,000)	이음섭(50,000)	이음남(30,000)	이원옥(100,000)
이윤수(200,000)	이윤정(100,000)	이은영(50,000)	이재성(50,000)	이정신(100,000)	이주희(170,000)
이지은(100,000)	이진우(100,000)	이태희(40,000)	이현경(60,000)	이형석(50,000)	이혜옥(370,000)
이황희(40,000)	이희진(370,000)	임유순(100,000)	임운엽(220,000)	장광옥,장자민(50,000)	장정만(50,000)
장종숙(110,000)	장지호(100,000)	장지현(10,000)	전종대(50,000)	전혜영(10,000)	정경희(150,000)
정성도(5,000)	정숙(100,000)	정영애(20,000)	정준순(100,000)	정주연(100,000)	정찬력(10,000)
정태현(10,000)	조성애(50,000)	조을남(10,000)	조희진(50,000)	조희진(100,000)	주님개갑사(50,000)
천정희(150,000)	최명옥(50,000)	최성은(10,000)	최영자(110,000)	최영화(140,000)	최영희(20,000)
최진복(20,000)	최진자(200,000)	추종석(100,000)	하태윤(30,000)	한경숙(10,000)	한송희(100,000)
한애스터(100,000)	허동욱(10,000)	허일(20,000)	허준(270,000)	홍복실(100,000)	황부영(50,000)
황순갑(200,000)					

●교회 감사헌금●

(가림)별명교회(100,000) (가림)선한목자교회(100,000) (가림)안양감리교회(200,000) (가림)야현성결교회(100,000) (예장)경주제일교회(200,000)
(예장)문호교회(100,000) (예장)왕의문교회(30,000) (예장)영락교회(300,000) (예장)하나로교회(100,000) 기쁜우리교회(100,000) 배이직교회(1,000,000)

(2025년 10월 01일 ~ 10월 31일까지)

비전성서침례교회(30,000) 예수사랑교회(30,000) 은혜의교회(50,000) 주찬양교회(50,000) 주찬양교회(50,000) 한국기독교장로회(50,000)

●기관 감사헌금●

(주)퀵테크(100,000) 갓피플웨딩(50,000) 계영산업(50,000) 길벗여행사(100,000) 로고스타디카페(20,000) 마라나타(30,000)
마라나타(200,000) 사랑의센터(50,000) 사랑의센터(50,000) 세빛소(200,000) 엔씨마과학수학학원(100,000)
온누리약국복지회(300,000) 창세예스앤터(50,000)

●미안마고아 선교헌금●

(주)GBP(50,000) 광삼미(40,000) 김명자(100,000) 김부녀(40,000) 김재민(40,000) 김현석(40,000)
박경근(40,000) 박지영(40,000) 백천성(40,000) 안성훈(송명옥)(40,000) 유경미(40,000) 윤혜경(40,000)
이상자(40,000) 이상자(40,000) 이윤옥(40,000) 이윤옥(40,000) 최신애(40,000) 최신애(40,000)
정현주(40,000) 정현주(40,000) 주영훈(40,000) 최신애(40,000) 최신애(40,000)

●중국고아 선교헌금●

윤혜경(40,000) 이해란(40,000) 조춘식(40,000)

●멕시코고아 선교헌금●

김동만(40,000) 윤혜경(40,000) 이해란(40,000)

●북한고아 선교헌금●

(주)GBP(50,000) 강일화(40,000) 강현미(40,000) 권경희(20,000) 김명호(20,000) 김미원(40,000)
김소영(5,000) 석영란(20,000) 안미라(40,000) 유재미(40,000) 윤혜경(40,000) 윤혜림(20,000)
이수미(50,000) 이해란(40,000) 장미주(40,000) 한상준(10,000) 함수아(40,000) 황주영(15,000)

●북한선교 헌금●

(주)엔패이브(100,000) 남기국(10,000) 박해영(30,000) 신경자(100,000) 이항자(50,000) 이해란(50,000)
장승아(50,000) 전해봉(20,000) 지선옥(20,000)

●베트남선교 헌금●

강연구(40,000) 강연구(40,000) 김영림(30,000) 박진희(40,000)

●아이티고아 선교헌금●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갓피플웨딩(40,000) 갓피플웨딩(40,000) 강인순(40,000) 고순미(40,000) 김경희(40,000) 김대준(송향)(40,000)
김상진(송향)(40,000) 김옥례(40,000) 김옥례(40,000) 김화련(50,000) 노윤정(40,000) 박서준(100,000)
박선인(40,000) 박선주(80,000) 새산성교회(40,000) 송향(40,000) 송현주(80,000) 안서영(송명옥)(40,000)
윤혜경(40,000) 윤혜원(20,000) 이재혁(40,000) 이찬의(40,000) 이해란(40,000) 장요셉(송향)(40,000)
장정문(40,000) 조경희(40,000) 조정숙(40,000) 채신혜(30,000) 최춘호(80,000)
하성화(40,000) 한국외국어대학교서양종교사상학의이해(50,000) 홍정희(40,000)

●아이티 선교헌금●

김인수(40,000) 박종래,최임선(20,000) 박재진(10,000) 상찬영(50,000)
신혜영(250,000) 이정희(30,000) 조경숙(100,000) 조경숙(100,000)
최주리(50,000) 최춘호(30,000) 한종석(200,000)



(*)GBP(100,000)	강금배(50,000)	강도숙(10,000)	강면구(20,000)	강영미(10,000)	강석우(50,000)	강순옥(10,000)	강신재(20,000)
강연정(3,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일화(20,000)	강지수(10,000)	강화란(10,000)	고건화(10,000)	고남균(10,000)
고명희(1,000)	고순영(10,000)	고영희(10,000)	고유경(30,000)	고정숙(10,000)	공은숙(50,000)	곽상미(10,000)	구남진(20,000)
구종해(5,000)	권미희(30,000)	권민정(30,000)	권유미(10,000)	권정아(10,000)	권혁천(10,000)	김경리(10,000)	김경민(10,000)
김경옥(30,000)	김경화(10,000)	김광찬(10,000)	김귀남(30,000)	김기열(3,000)	김나형(100,000)	김대원(10,000)	김동근(30,000)
김동만(50,000)	김명수(150,000)	김명순(10,000)	김명옥(100,000)	김명희(10,000)	김문숙(10,000)	김마숙(10,000)	김미화(10,000)
김민경(30,000)	김번옥(10,000)	김베드로(10,000)	김보경(10,000)	김보연(30,000)	김복자(10,000)	김부내(30,000)	김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선희(10,000)	김성란(20,000)	김소라(10,000)	김소영(10,000)
김소연(40,000)	김소자(5,000)	김수경(20,000)	김수경(10,000)	김수영(20,000)	김수정(30,000)	김숙미(10,000)	김순복(20,000)
김순하(10,000)	김솔아(10,000)	김승호(30,000)	김연옥(10,000)	김영상(5,000)	김영성(5,000)	김영숙(10,000)	김영숙(10,000)
김영옥(20,000)	김영민(1,000)	김영주(30,000)	김영진(10,000)	김영진(40,000)	김요례(10,000)	김옥경(20,000)	김용경(10,000)
김용기(10,000)	김원희(10,000)	김유진(10,000)	김은경(10,000)	김은주(5,000)	김은희(100,000)	김인숙(10,000)	김인자(30,000)
김인주(50,000)	김일형(20,000)	김재성(80,000)	김정화(20,000)	김종혁(10,000)	김종미(10,000)	김종선(2,000)	김종순(10,000)
김주남(30,000)	김주애(20,000)	김지은(20,000)	김지현(10,000)	김진아(5,000)	김창영(10,000)	김현일(20,000)	김태조(10,000)
김한나(5,000)	김병은(10,000)	김형순(5,000)	김현자(30,000)	김현희(10,000)	김혜린(5,000)	김혜원(20,000)	김호남(30,000)
김호숙(10,000)	김효정(20,000)	김희진(광명민)(50,000)	김희숙(30,000)	김희자(10,000)	김희정(10,000)	나영미(20,000)	나주영(10,000)
남혜경(20,000)	노란이(30,000)	노은실(10,000)	노한준(30,000)	노문식(30,000)	류명순(5,000)	류승환(10,000)	명은자(10,000)
명주현(10,000)	무명(50,000)	무명(30,000)	문경자(5,000)	문상철(10,000)	문수민(100,000)	문은정(50,000)	문혜영(10,000)
민경희(30,000)	민수희(100,000)	박경근(30,000)	박경옥(10,000)	박경화(10,000)	박경희(10,000)	박다은(5,000)	박영자(10,000)
박명희(10,000)	박미경(10,000)	박미영(20,000)	박민선(10,000)	박민정(20,000)	박배근(10,000)	박상진(10,000)	박서애(10,000)
박서운(20,000)	박성희(10,000)	박소연(20,000)	박숙희(5,000)	박순영(10,000)	박시용(15,000)	박양미(4,000)	박연주(10,000)
박영수(10,000)	박인권(20,000)	박자경(10,000)	박자연(50,000)	박재용(3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지민(10,000)
박지상(10,000)	박지원(자문대)(10,000)	박진철(10,000)	박창권(1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한숙(100,000)	박현숙(5,000)
박혜정(10,000)	박효숙(20,000)	방소민(10,000)	방소윤(10,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변상민(10,000)	변요섭(10,000)
변준섭(10,000)	사순희(10,000)	사재선(20,000)	서기준(10,000)	서혜원(20,000)	석영란(10,000)	석진희(30,000)	성기범(40,000)
성준호(10,000)	손경순(30,000)	손미라(10,000)	손석현(20,000)	손성미(2,000)	손요셉(10,000)	손진파(10,000)	손현경(10,000)
송경옥(50,000)	송경자(30,000)	송규화(50,000)	송기승(50,000)	송상신(10,000)	송연숙(50,000)	송은경(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20,000)	신사진(30,000)	신승우(40,000)	신영주(10,000)	신은미(30,000)	신정용(30,000)	신현숙(10,000)	신현우(200,000)
심영경(3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30,000)	안유진(20,000)	안효철(10,000)	안훈숙(10,000)	안희영(1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재희(10,000)	양진옥(10,000)	양현아(20,000)	여인귀(30,000)	염영태(5,000)
오재원(10,000)	오진숙(5,000)	용가숙(5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상희(5,000)	원신애(50,000)	원현정(3,000)
유미선(3,000)	유민아(10,000)	유부자(10,000)	유선옥(10,000)	유성옥(10,000)	유수남(20,000)	유수영(10,000)	유이레(10,000)
유정모(20,000)	유정열(10,000)	유준서(5,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두원(10,000)	윤만순(20,000)	윤상길(5,000)

윤상훈(5,000)	윤영자(50,000)	윤용석(10,000)	윤인초(1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희숙(30,000)
윤희영(1,000)	이강섭(2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수(10,000)	이경화(30,000)	이공미(100,000)	이광옥(2,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동욱(30,000)	이명숙(10,000)	이명순(10,000)	이명주(10,000)	이문정(10,000)	이방훈(50,000)
이병기(10,000)	이보미(10,000)	이산복(20,000)	이상중(50,000)	이상진(20,000)	이선미(20,000)	이성순(10,000)	이성자(20,000)
이수민(10,000)	이수정(5,000)	이숙자(10,000)	이순아(10,000)	이순주(10,000)	이승연(3,000)	이애연(10,000)	이애희(10,000)
이영관(10,000)	이영미(30,000)	이영석(100,000)	이예원(10,000)	이옥순(20,000)	이원경(10,000)	이유진(30,000)	이은경(30,000)
이은숙(10,000)	이은주(50,000)	이옥신(10,000)	이의화(10,000)	이인룡(20,000)	이재동(백안순)(10,000)	이재문(20,000)	이재원(10,000)
이재희(30,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재호(10,000)	이종수(10,000)	이종수(40,000)	이종호(30,000)	이주아(20,000)
이준옥(1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100,000)	이찬의(50,000)	이창호(50,000)	이향순(50,000)	이현주(20,000)	이현희(20,000)
이혜경(10,000)	이해성(10,000)	이혜진(50,000)	이화영(5,000)	이희정(10,000)	임경희(10,000)	임미향(2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섭(3,000)	임수연(10,000)	임신화(10,000)	임영미(2,000)	임영환(30,000)	임정화(10,000)	임춘옥(20,000)
임혜순(30,000)	장문심(100,000)	장민홍(1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순아(10,000)	장영희(10,000)
장윤정(10,000)	장은별(50,000)	장인화(30,000)	장향자(10,000)	장현숙(30,000)	전경진(100,000)	전혜영(20,000)	전영숙(50,000)
전재국(10,000)	전해봉(10,000)	정경아(5,000)	정광덕(50,000)	정덕규(20,000)	정두섭(10,000)	정미경(20,000)	정미선(5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성분(10,000)	정순남(10,000)	정애리(20,000)	정유정(20,000)	정유진(30,000)	정윤경(10,000)
정윤호(10,000)	정은희(10,000)	정인철(50,000)	정재경(5,000)	정재미(5,000)	정진숙(10,000)	정혜자(10,000)	정혜진(10,000)
정현지(20,000)	조경찬(10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근정(10,000)	조새롬(10,000)	조성필(10,000)
조성원(10,000)	조수아(2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운정(100,000)	조은영(10,000)	조주상(20,000)	조준호(5,000)
조현미(10,000)	조혜숙(2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지선옥(12,000)	지영자(50,000)	지재문(20,000)	진미재(2,000)
진순애(1,000)	차희승(40,000)	채송화(10,000)	채정임(10,000)	채지영(30,000)	천민정(10,000)	천정희(100,000)	천주리(10,000)
천희숙(20,000)	최가영(20,000)	최강의(10,000)	최경선(10,000)	최귀분(50,000)	최금련(30,000)	최민형(10,000)	최민홍(10,000)
최상해(10,000)	최명숙(30,000)	최옥순(10,000)	최완희(100,000)	최윤구(2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임부(10,000)
최재희(100,000)	최주덕(20,000)	최하나(10,000)	최현숙(20,000)	최현종(10,000)	최혜정(20,000)	최혜정(100,000)	추윤희(20,000)
추윤희(20,000)	하천기(10,000)	한가숙(10,000)	한동기(50,000)	한미운(30,000)	한진현(10,000)	함대훈(10,000)	함지훈(10,000)
허상익(30,000)	허시원(30,000)	허인애(30,000)	홍성경(30,000)	홍순경(20,000)	홍영희(5,000)	홍을희(20,000)	홍재필(20,000)
홍정희(10,000)	홍주연(2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정아(20,000)	황중문(10,000)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소중한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중림파출소 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후문 앞).

소중한 사람들에 헌금을 보내시려면

0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0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

0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404-619993 소중한사람들교회

0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IM DONG BR SWIFT CODE : HVBKRRSEXXX 소중한사람들교회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05 임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천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임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현금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5-0059-6115-03 소중한사람들교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06 소중한사람들 확장 소망 현금 계좌는 아래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 교회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소중한사람들 후원신청서 (F. 02-365-9104 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명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 목적지정 안함 ☐ 노숙인 사업 ☐ 노숙인 교회 ☐ 암 환우 힐링센터 ☐ 해외고아 1:1 결연(4만원) ☐ 미얀마 ☐ 아이티 ☐ 멕시코 ☐ 중국 ☐ 북한			
	후원금액	원	후원구분	☐ 일시후원 ☐ 정기후원	
	후원방법	☐ 자동후원(CMS) ☐ 직접 계좌이체 ☐ 현금 ☐ 기타()			
CMS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 6일 ☐ 16일 ☐ 26일	통장구분	☐ 개인통장 ☐ 법인통장	

한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8길 12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

아이티 DELMA 75, PORT-AU-PRINCE, HAITI TEL 509-3655-7153

멕시코 Lote 4 Man Zana 7 s/n nacionalistade Sanchez Tabada la Meza Ensenada, B.C cp22790 TEL 521-646-947-9250

미얀마 No724/D. No(41) B,E,P,S Lane, Lower Mingalardom Road, Sintngu @TR, Insein Tounship yangon, Myanmar.
TEL 951-645858, 959-73086721

중
국
북
한